

2024 콜롬비아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I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1. 개요	4
가. 시장 전망	4
나. 주요 경제지표	5
2. '24년 주요 이슈 및 전망	6
가. 국가개발계획 2022~2026	6
나. 페트로 정부, 계속되는 개혁안 좌초 위기	8
다. 자국 산업 보호 및 자급자족 사회 추진	9
라. IT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10

II 비즈니스 환경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13
2. 시장 분석	21
가. 시장 특성	21
나. 교역	22
다. 투자	27
라. 프로젝트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31
가. 교역	31
나. 투자 진출	34
다. 협력 유망 분야	35

III 진출전략

1. PEST 분석	37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38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39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43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46
첨부 3. '24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47
첨부 4. '24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47

Chapter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 전반적인 경제지표 반등세 전망

- '23년의 경제는 호황기였던 최근 몇 년과는 달리 부진하였지만 '24년에는 물가, 환율, 투자, 무역 등의 경제지표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
 - 세계은행, 콜롬비아 중앙은행, IMF는 '24년 콜롬비아 경제 회복을 전망
-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안은 의회와의 이견으로 계류 중이며, 대통령의 독단적인 행보가 주춤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투자지표 상승할 전망
- '23년 5월에 승인된 현 정부의 국가개발계획은 사회적 양극화 및 저소득층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해당 분야 예산 증액 예정
 - '22년부터 시행된 세제 개혁을 통해 확보된 세금과 경제 회복 전망은 국가 소득을 증가시켜 정부 지출이 많음에도 불과하고 재정수지 회복 예측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인구	백만 명	49.07	49.46	49.78	50.3	51.04	51.87	52.09	52.34
명목GDP	십억 달러	311.8	339.7	323.6	270.4	314.5	343.6	350.6	370.6
1인당 명목GDP	달러	6,377.8	6,718.6	6,432.3	5,368	6,161	6,659	6,052	6,327
실질성장률	%	1.4	2.5	3.3	-6.8	7.8	7.5	1.6	3.0
실업률	%	9.4	9.7	10.5	15.9	13.8	11.2	10.2	9.4
소비자물가상승률	%	4.3	3.2	3.8	1.61	5.6	13.12	7.6	4.2
재정수지(GDP대비)	%	-2.7	-2.9	-2.4	-7.8	-6.8	-5.5	-4.5	-3.9
총수출	백만 달러	37,770	41,835	39,496	28,637	41,389	57,115	60,500	64,800
(對韓 수출)	"	651	834	718	684	585.7	609.5		
총수입	"	46,076	51,231	52,703	43,489	56,648	77,413	79,600	75,200
(對韓 수입)	"	814	1,012	1,143	593	859.7	1,050		
무역수지	백만 달러	-8,306	-9,396	-13,207	-12,433	-19,259	-20,298	-19,000	-10,400
경상수지	"	-10,341	-14,187	-14,808	-9,258	-17,892	-21,252	-14,900	-12,900
환율(연평균)	현지국/US\$	2,951	2,956	3,281	3,693	3,743	4,256	4,690	4,755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3,690	5,126	3,153	1,685	3,161	3,401	4,960	1,490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13,701	11,299	13,989	7,459	9,310	16,869	15,340	12,270

주: 2023년은 1Q 기준 추정치, 2024년은 전망치 기입

자료: GTA, 콜롬비아 중앙은행(Banrep), 콜롬비아 통계청(DANE), 콜롬비아 재무부, EIU, Fitch solution

- (정부): 사회 양극화 개선 및 환경보호 중심의 국가개발계획 승인
- (산업):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적인 행보
- (개혁): 의회와 정부의 의견 차이로 인해 계속되는 개혁안 좌초
- (기술): 디지털 전환 추진 및 신기술 도입 적극 추진

가. 국가개발계획 2022~2026

▣ 사회적 양극화와 환경보호 중심의 국가개발계획 발표

- 국가개발계획은 국가의 주요 부문을 포괄하는 전략적 목표, 정책, 사업 등을 설정하는 여당 추진 해결책임
- 이번 국가개발계획은 특히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며 빈곤, 기아, 환경보호와 같은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 프로젝트를 모색하고 있음
- 이 계획은 '22년 9월에 상정되어 '23년 5월에 승인되었고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구성

▣ 5가지 주요 목표

- 토지 재편 및 농업 환경 개선
 - 내전으로 인해 상실됐던 토지(290만 헥타르)를 대대적으로 회수, 반환, 인도하여 갈등을 극복하고 농업 발전을 도모
 - 비공식 농업활동*의 공식화를 통해 더욱 생산적인 농업 부문 구축 및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결속력 개선
- * 정부 집계에 등록되지 않은 농업사업자로부터 발생하는 농업활동
- 농업개혁의 통합과 실행을 위한 다목적 재산세 가속화

- 치안 향상 및 사회 평등을 위한 사법 절차 강화
 - 다차원적 빈곤율 16%→11.5~9.5%로 축소
 - 인터넷 접속 인구 38.3%→71.4%로 증가
 - 전문 교육 및 대학 접근성 향상을 통한 학령인구 비율 53.9%→62%로 증가
 - 대중 경제 추구, 비공식 기업 공식화 및 소규모 기업의 수입 증가*를 촉진
 - * '22년 기준 콜롬비아 소규모 기업 수입은 약 1,415만 달러이며 6% 증가 목표
 - 여성들의 무급 노동 시간 및 모성사망률 축소
 -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
- 식량안보 및 기아 문제 해결
 - '26년까지 극빈층 12.2%→9.6%로 축소
 - 식량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 및 아동 기아 종식
 - 국가의 미래 식량주권 보호를 위한 식량생산성 및 식량자급률 강화
- 생산성 개선 및 기후변화 조치
 - 콜롬비아의 서비스상품 생산성 향상을 통해 생산효율성 상승 및 자급자족 경제 전환 추구
 - 석유와 탄소에너지원의 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촉진
 - 170만 헥타르 상당의 생태계 복원을 통한 환경보호 및 사회적 포용 추구
 - 삼림 벌채 활동 20%(35,000헥타르) 축소
 - 수출 다각화를 통해 광업 및 에너지 관련 품목 외의 수출품 비중을 56.3%까지 증가
 - GDP의 0.5%를 R&D에 투자하여 국가의 산업 생산량 증가 및 기술 산업 개선
 - 이산화탄소 214만 톤 감소하여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 구현
- 소외지역 발전
 - 저소득층의 주택 소유에 대한 접근성과 기회 증가
 - 농업 물류체계 개선 및 농촌 발전 기회를 높이기 위해 지역도로 개선
 - 내륙 운송비용 감소를 위한 중소도시의 물류 인프라 강화
 - 빈곤율 감소를 위한 농촌 지역사회 프로그램 증편

나. 페트로 정부, 계속되는 개혁안 좌초 위기

■ 보건 개혁

- (내용) 콜롬비아의 의료 예산 관리 기관이자 병원과 민간 중개기관인 건강보험사(EPS)를 폐지하여 중개 없는 통합 건강 시스템 구축을 추진
 - 콜롬비아 의료 예산은 △취약계층 보조금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여금으로 구분되며 EPS는 이 두 예산을 모두 관리
 - 따라서 이 개혁은 EPS를 폐지함으로써 중개 없는 의료 시스템 및 중앙정부의 자금 관리 총괄을 추진
- (현황) 정부는 해당 개혁을 '22년 말에 추진하였지만 의회는 개혁의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며 '23년 초에 개혁안 입법을 거부

■ 연금 개혁

- (내용) 정부는 콜롬비아에 현존하는 두 가지의 연금 제도를 혼합하는 개혁안을 제출
 - 콜롬비아의 연금 시스템은 공적자금의 '프리마 메디아(Prima Media)' 제도와 민간 펀드의 '개인 저축(Ahorro Individual)' 제도로 개인이 원하는 제도를 선택해 납입하는 방식으로 운영
 - 본 개혁안은 두 제도를 혼합하여 콜롬비아 전 국민에 연금 지급 및 모든 근로자들이 은퇴할 때 연금 혜택 수혜를 목표함
- (현황) 해당 개혁안은 기여금 액수 조정 등 몇몇 사항과 관련해 상원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정부는 개편 의사를 표현

■ 노동 개혁

- (내용) 현 정부에 따르면 지난 정권 때 △추가 근무 수당 △계약 유형 △계약직의 근로 기간 △비공식 노동활동(특히 취약계층)의 공식화 등에 있어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개혁안 추진
- (현황) 상원과 민간단체에서는 이런 개혁안이 오히려 더 많은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라며 개혁안 승인을 미루고 있음

다. 자국 산업 보호 및 자급자족 사회 추진

■ 타국과의 교역보다는 자국 산업 보호에 집중

- 콜롬비아가 현재 추진 중인 새로운 무역 협정은 없으며 태평양 동맹(콜롬비아, 멕시코, 칠레, 페루)과 같은 일부 협정에 참여 중
 - 태평양 동맹과의 FTA 협상을 하고 있는 나라로는 싱가포르와 호주-뉴질랜드 동맹이 있음
 - 태평양 동맹은 한국을 포함해 다른 준회원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4개 회원국의 내부 합의문 필요
 - * '23년 9월 한-콜 정상회담에서 한국 측은 콜롬비아 정부에 태평양 동맹 준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음
 - 현재 동맹 내부적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한 협상단계에 있으며, 이는 '23년 말까지 진행 예정
 - 콜롬비아는 튀르키예-일본과의 양자 FTA 협상을 일부 연기했으며 재개 시기 불확실
- 국가 산업 발전에 악영향 미치는 제품에 대한 관세 증가 조치
 - '22년 말, 정부는 중국산 의류 수입품이 자국 의류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의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40%로 증가시키는 법령을 발표하였으며 '23년 1월 발효됨
 - '23년 1~7월, 중국산 의류 수입액 작년 동기 대비 -23.3% 기록

■ 국외 교역 의존도 축소 및 자급자족 사회 추구

- 현 정부는 자국 산업을 보호를 통해 팬데믹 및 러-우 사태와 같은 예측 불가 상황으로부터 대처 방안 마련
 - 페트로 정부는 장기적 측면의 농·공업 및 제조업 가치사슬(Value chain) 개선을 통해 식품, 의류와 같은 제조품의 현지 생산을 장려하는 전략을 제안

라. IT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 콜롬비아 IT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계획 및 실행방안

- 콜롬비아는 자국의 통신기술 및 인프라 향상을 위한 공공·민간 협업에 집중
- 콜롬비아 정보기술통신부(MINCIT)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기술 제공을 가능케 하는 기술 접근성 개선 및 확장 계획 'Technology Information Communication Plan(TIC)'을 수립
 - 교육, 보건, 정부 서비스, 상업 및 금융과 같은 공공·민간 부문의 공통 서비스를 위한 기술 수용도 증가
 - 정부는 각 분야에서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민간기업과의 제휴를 적극 모색 중
- 교육 부문
 - 공교육 부문에서 에듀테크 기반의 'Aprende Digital*' 기술을 채택하여 교육 서비스의 현대화를 실행
 - * 콜롬비아 교육부와 정보통신기술부가 공공·민간 교육기관의 학습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 무상 교육 플랫폼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에듀테크를 시행하고 있으며,
 - 콜롬비아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에듀테크 사업을 개발하고 초·중등 교육에 도입 추진
 - 에듀테크를 통해 온라인 기반의 교육이 시행되어 교육 접근성 강화 예상
- 의료 부문
 - 정부와 민간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원격진료 및 의학 부문 서비스를 개선하는 기술 검토
 - 의료 부문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원격 서비스를 제공하여 점진적으로 제공 지역을 확대하는 서비스 검토 중
- 전자정부
 -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들은 행정절차 자동화 기술을 채택하여 빠르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구현 예정

-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 인프라
 - 콜롬비아 주요 시정부는 스마트시티 기술 도입 및 공공 인프라의 현대화 프로젝트 착수
 - 일부 프로젝트는 한국과의 협업을 통한 교통 운영 시스템, 대중교통 통제 시스템 개선이 목표

■ 시장 평가

- 기술 채택
 - 기술 채택 및 도입은 단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여겨지며 정부는 민간 부문의 기술 회사와의 제휴 추진 중
 - 이와 같은 기술 채택은 도시기본계획(Plan de Ordenamiento Territorial, POT)에 명시되어 있는 사안

Chapter



비즈니스 환경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경제) 2022년 대비 콜롬비아 상반기 성장을 하락 및 전반적 경제 둔화
- (산업) 물가 상승 및 금리 인상으로 인한 제조업 둔화
- (정책) 국가 산업 보호 정책 등의 보호무역 성향 정부 행보 두각

가. 정치 환경

▣ 콜롬비아 정치 환경

정부 형태	대통령제 (4년 단임제)
국가 원수	구스타보 페트로 (Gustavo Petro) * '22년 8월 7일 임기 시작
입법부	양원제 (상원 104석, 하원 192석)
주요 정당	국민연합사회당, 자유당, 보수당, 인간적인 콜롬비아당, 녹색당 등
정부 성향	진보, 사회주의 성향

- 콜롬비아 정치 성향
 - 콜롬비아는 전통적으로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진보 성향이 강한 남미 국가와 달리 보수 성향이 강했으나 작년 역사상 첫 진보 성향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 당선
 - '23년 10월에 진행된 지방선거에서, 주요 도시에서 여당이 대거 패배하면서 향후 대통령의 행보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시각 우세
 - 페트로 이전까지의 콜롬비아는 친미 우익 성향이 강한 국가였음
 - * 제58대 우리베(Uribe) 대통령, 제59대 산토스(Santos) 대통령, 제60대 두케(Duque) 대통령 모두 보수 성향 출신
- 콜롬비아의 국가 부패 환경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2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콜롬비아는 전체 180개국 중 91위(중남미 15위) 차지
 - * 1위 : 덴마크 / 31위 : 한국 (부패지수 순위가 높을수록 부패 정도가 낮음)

나. 경제 환경

▣ 콜롬비아의 경제 환경

- 경제지표 개선 전망
 - 호황기였던 최근 2년과 달리 정부 개입, 높은 금리와 세금, 인플레이션 및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23년도 상반기의 콜롬비아 경제는 크게 하락하였으며 하반기에 소폭 회복할 것으로 전망
 - '24년부터는 세계 경제 회복과 함께 콜롬비아의 무역 흑자 전환, 물가 안정, 가계 소비 증가 및 전반적인 경제 회복을 기대
 - 한편, 회복세가 예측되는 2024~2027년 기간에 페트로 정부의 개입주의 정책은 민간투자 활성화의 방해요소가 될 전망

〈연도별 경제성장률 현황〉

(단위: %)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3.3	-6.8	10.7	7.3	1.6	2.8

주: 2023, 2024년은 전망치

자료: 콜롬비아 통계청(DAN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23.09)

- 민간 소비
 - 2023년 민간 소비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작년에 이어 여전히 불확실한 정책 전망, 물가 상승, 통화 긴축 및 세금 인상이 소비자 신뢰도를 크게 하락시킨 것으로 파악

〈연도별 민간 소비 증감률〉

(단위: %)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3.9	-5.6	14.8	9.5	0.9	3.0

주: 2023, 2024년은 전망치

자료: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23.09)

- 환율
 - 연초에 미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국가의 외환이 감소하면서 페소의 가치가 하락하였지만 페트로 정부의 개혁안 미승인으로 외국인 투자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23년 하반기는 안정세 전망
 - '23년 및 '24년은 국내 정치적 혼란으로 큰 통화 변동성이 예상되지만 쌍둥이 적자 등의 경제요인들이 회복되면서 점진적인 달러 약세화 전망

〈연평균 달러 환율 변화 추이〉

(단위: 1USD = COP)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3,281	3,693	3,744	4,256	4,340	4,096

주: 2023, 2024년은 전망치

자료: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23.09)

- 물가상승률

- '22년에 이어 '23년 1분기까지 물가는 상승세에 있었지만 4월부터 서서히 감소하였고 이에 콜롬비아 재무부는 現 하락세가 지속될 것을 예상하며 연말 전망치로 9.2%를 발표
- '23년 8월까지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른 분야는 교통과 레스토랑 및 호텔이며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인 분야는 정보통신과 식품 및 음료임

〈콜롬비아 최근 4년간 물가상승률〉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2020	2021	2022	2023. 1~8월
1.61	5.62	13.12	7.43

자료: 콜롬비아 통계청(DANE)(2023.09)

다. 산업 환경

▣ 도소매업, 공공 서비스, 중간재 위주 제조업 기반 보유

- 콜롬비아 제조업은 중간재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소비재 생산 기반이 취약함
- 섬유, 플라스틱, 자동차, 타이어, 철강 등 일부 제조업 기반 보유
- 화훼, 커피 및 기타 농축업을 주축으로 한 수출산업 육성정책 강화

〈콜롬비아 주요 산업별 GDP 대비 비중〉

(단위: %)

산업	2020	2021	2022	2023. 상반기
농축산업	7.5	8.2	8.30	8.55
광업	4.9	5.8	7.55	6.31
제조업	12.8	12.7	11.52	11.37
전기/가스/수도	3.5	3.9	3.68	3.94
건설	5.7	5.2	4.12	4.05
도소매업	17.2	19.6	18.10	18.37
정보통신	3.3	3.0	2.47	2.41
금융	5.7	5.0	3.91	3.89
부동산	10.9	9.3	7.14	7.06
전문업(의료, 법률 등)	7.8	7.4	6.24	6.25
공공서비스	17.9	16.7	13.39	13.96
문화/오락	2.8	3.1	3.38	3.75

* 자료: 콜롬비아 중앙은행(Banrep)(2023.10)

〈콜롬비아 주요 산업별 GDP 대비 성장률〉

(단위: %)

산업	2020	2021	2022	2023. 상반기
농축산업	2.5	18.5	33.3	13.7
광업	-16	45.2	62.8	-5.8
제조업	-7.7	24.8	26.5	9.1
전기/가스/수도	-2.5	12.5	21.2	19.9
건설	-25.8	11.9	15.8	7.6
도소매업	-15.1	25	22.4	12.3
정보통신	-2.6	9.8	12.7	5.6
금융	2.1	7.6	8.5	9.3
부동산	1.9	4.3	5.4	7.2
전문업(의료, 법률 등)	-4.3	12.5	15.9	9.6
공공서비스	0.7	8.7	11.2	12.8
문화/오락	-11.5	35.6	46.2	26.9

자료: 콜롬비아 통계청(DANE)(2023.10)

■ 1차산업 주요 품목

- 커피
 - 콜롬비아는 세계 3위 커피 생산국으로 전 세계 수확량의 약 9% 차지
 - 커피생산자협회(Federacion Nacional de Cafeteros de Colombia)는 국내 커피 생산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며, 다양한 커피 관련 지원 활동을 총괄
 - 최근 몇 년간 라니냐 현상으로 인한 커피 수확량 감소

〈커피 수확량 현황〉

(단위: 100자루, 60kg/1자루)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7월
커피 생산량	13,557	14,752	13,890	12,577	11,084	5,967
증가율 (%)	-4.4	9.0	-6.0	-9.0	-11.87	-6.36

주: 전년 동기 대비

자료: 커피생산자협회(Federacion Nacional de Cafeteros de Colombia)(2023.08)

- 화훼
 - 콜롬비아는 세계 2위 화훼 수출국으로 약 15만 명이 관련 업종에 종사
 - '23년 상반기 수출액 기준 콜롬비아 최대 수입국은 미국, 캐나다, 영국 순
 - 한국은 콜롬비아산 화훼를 10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며, '23년 4월에는 어버이날을 위해 처음으로 비행기를 이용해 카네이션 30만kg을 수입

〈화훼 수출량 및 수출액〉

(단위: 톤, 백만 달러)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상반기
수출액	1,495	1,431	1,756	2,082	1,147

주: HS CODE 06 기준

자료: 콜롬비아 상공회의소(Procolombia), GTA(2023.08)

- 석유 & 광물
 - 석유 및 광물은 콜롬비아의 최대 수출 산업이자 '23년 상반기 기준 콜롬비아 전체 수출액의 약 50%를 차지
 - 현재 등록되어 있는 광업권은 9,602개로 총 312종의 광물을 포함하고 있음

〈원유 수출량 및 수출액〉

(단위: m³, 백만 달러)

연도	2020	2021	2022	2023. 상반기
수출량	31,640,351	26,918,110	28,245,675	13,659,844
수출액	7,130	11,200	16,051	5,605

주: HS CODE 2709 기준

자료: GTA(2023.08)

- 석탄의 경우 '16년부터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인권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수입을 중단하고 러시아에서 공급받다가 '22년 러-우 사태로 인해 아일랜드, 독일 등의 몇몇 국가들은 콜롬비아 석탄 수입활동을 재개

〈석탄 수출량 및 수출액〉

(단위: kg, 백만 달러)

연도	2020	2021	2022	2023. 상반기
수출량	67,834,583	55,600,379	56,561,819	26,200,375
수출액	3,543	4,380	10,505	4,501

* 주: HS CODE 2701 기준

* 자료: GTA(2023.08)

▣ 주요 2차산업

• 제조업

- 제조업은 '23년 상반기 GDP 성장을 견인한 주요 4개 산업(소매업, 공공서비스, 제조업, 건축) 중 하나로 콜롬비아 GDP 대비 비중 약 11%를 차지
- '23년 상반기 산업생산지수는 마이너스 수치로 나타났고, 이는 제조업의 부진으로 설명되며 둔화 이유로 높은 금리를 분석

〈콜롬비아 최근 4년간 산업생산지수 및 제조업 성장률〉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상반기
산업생산지수	-9.9	10.3	7.5	-0.8
제조업 성장률	-8.0	15.9	10.7	-2.6

* 자료: 콜롬비아 통계청(DANE)(2023.08)

• 자동차 조립 산업

- 콜롬비아는 자동차 생산지는 아니나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르노(Renault), 히노 모터스(Hino Motors) 등의 조립공장이 있으며 중고 자동차에 대한 높은 선호도로 인해 정비소 산업의 규모도 큼
- 관련 시장인 자동차 부품시장 또한 수입에 크게 의존하며, 그 중 한국은 규모로 여덟 번째 수입국에 해당되며 주요 품목으로는 클러치, 차체, 현가장치 등이 있음

〈콜롬비아 자동차 부품품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천 대)

구분	2020	2021	2022	2023. 상반기
수출액	25	42	48	21
수입액	431	572	808	338

* 주: HS CODE 8708 기준

* 자료: GTA(2023.08)

- 인프라 건설

- 콜롬비아는 국토 전체적으로 대도시와 주요 항구, 공항 등 물류 이동 연결성 강화를 위해 4G, 5G 인프라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며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총 99개임

〈콜롬비아 인프라 프로젝트 동향〉

종류	개수	담당기관
도로	96	국가 도로청(INVIAS) & 국가 인프라청(ANI)
하천	2	국가 공항공사(Aerocivil)
공항	1	콜롬비아 막달레나강 환경관리공단(Cormagdalena)

* 자료: 국가도로청(INVIAS)

■ 주요 3차산업

- 소매업

- 최근 2년의 상승세와 달리 '23년도의 소매업 실질 판매 실적은 감소 수치로 나타났으며 의류·신발류의 관세 인상(각각 40%, 35%), 소비자 신뢰도 하락 및 물가 인상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힘
- 반면 콜롬비아 전자상거래는 상승세에 있으며 '23년 2분기에 약 38억 달러 상당의 거래액을 기록하였고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6.28%를 나타냄

〈콜롬비아 최근 3년간 소매업 실질 판매 증감률〉

연도	2021	2022	2023. 상반기
증감률(%)	17.8	10.2	-5.2

자료: 콜롬비아 통계청(DANE)(2023.09)

라. 정책·규제 환경

▣ 국가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증감 조치

-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한 의류 관세 인상
 - '23년 1월 8일부터 시행된 법령 제2598호를 통해 콜롬비아 의류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품목번호 61과 62인 의류와 그 부속품의 관세를 40%로 증가
- 국가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 투입물에 대한 관세를 0%로 인하
 - 국가 농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본관세 5~10%였던 농업 투입물과 비료 및 살충제에 대한 관세를 0%로 인하

▣ 콜롬비아 ESG 적용

- 콜롬비아의 ESG 정책
 - 콜롬비아의 대표 ESG 정책으로는 플라스틱 사용 감소 정책, 녹색산업 분류체계 (Green taxonomy), 연금 의무 가입 정책, 콜롬비아 중앙은행이 이끄는 기후변화 토론 및 콜롬비아 은행 및 금융기관 협회에서 채택한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규정 등이 존재
- 콜롬비아 기업들의 새로운 ESG 패러다임
 - 콜롬비아 내 많은 기업들이 ESG를 지향하고 있으며, 신용평가기관 S&P 글로벌의 연례보고서에 콜롬비아 기업 17개 사가 멤버로 등록되어 있음
- 콜롬비아 대표 금융기업이자 ESG 선도업체인 Bancolombia사는 '30년까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에너지 효율성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자금 최대 4,000억 페소(약 8.9억 달러) 지원 계획이며, 그 외에도 지배구조(G)의 모델로 회사 운영체계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감독위원회 신설 예정
- '23년 5월 콜롬비아 최대 석탄 생산업체인 Drummond사는 '50년까지 광산 및 에너지 생산 운영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술과 솔루션을 구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계획안 발표

2

시장 분석

- (수입) 소비재 생산 기반 취약으로 인한 완제품 수입 高
- (교역) 수출입 모두 지속적으로 미국과 중국에 의존적 경향 有
- (투자) 의회와 정부 간 입법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감소로 인한 FDI 증가 전망

가. 시장 특성

▣ 콜롬비아 시장 특성

- 중남미를 관통하는 내수시장 보유
 - 콜롬비아는 인구 약 5,200만 명으로 중남미 내에서 제3위 내수시장을 보유
 - 안데스 공동체, 태평양 동맹 등 중남미 경제블록 회원국으로 콜롬비아를 비롯해 주요 회원 가입국 전체 인구 2억 명의 거대 시장 진출 가능성 보유
 - 남미에서 유일하게 태평양 및 대서양에 연안을 지닌 국가로 물류에 있어 상대적 우위 점하고 있음
- 완제품 중심의 수입구조
 - 콜롬비아는 제조업 기반이 중간재 위주로 형성되어 소비재 생산 기반이 취약하며, 특히 전자제품, 의료기기, IT제품 등과 같은 내구성 소비재 및 일반 생활소비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
- 빈부 격차로 인한 소비시장 양극화
 - 콜롬비아는 지역 및 소득 계층별로 생활 소비 패턴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므로 저소득층은 가격 민감도가 높고 고소득층은 비교적 높은 브랜드 충성도를 나타냄
 - 또한 소비자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브랜드 충성도가 낮고 가격 비교에 민감한 편으로, 이런 소비심리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저가형 할인 마켓이나 레스토랑이 콜롬비아 전역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음
 - '22년 통계청(DANE)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1년 빈곤·취약계층이 전체 인구의 약 39.3%를 차지

〈'21년 콜롬비아 인구 대비 소득 계층 격차 구분 기준 및 비중〉

(단위: 달러)

구분	빈곤층	취약층	중산층	상류층
전체 인구 대비	39.3%	31.0%	25.3%	3.8%
가구당 월 소득	89 이하	89~173	173~927	927 이상

* 주: 적용 환율 1달러 = 3,992COP

* 자료: 콜롬비아 통계청(DANE)

-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시장
 - '23년 인구 전망치(51.09만 명) 기준 콜롬비아 전체 인구 중 15세 이상 65세 이하 인구가 68.2%를 차지
 - '23년도 기준 콜롬비아 최저임금은 약 327달러임
 - * '23년 콜롬비아 최저임금: 최저임금 290.58달러 + 교통보조비 35.22달러 = 325.80달러
 - * 적용 환율 1달러 = 3,992COP
- 시장·수출 다각화 및 재산업화 추구
 - 정부는 콜롬비아의 원유 및 광물 수출 의존도(전체 수출의 약 50% 차지)를 낮추고 농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토지 매입과 불모지 및 경작되지 않은 비옥한 토지를 활용하고 농산물 생산 체인 촉진 방안 모색
 - 또한 페트로 정부의 핵심 정책인 재산업화는 에너지 전환, 농업 산업화 및 식량주권 확보, 제약과 국방 부문의 재산업화 촉진, 소도시의 기업들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한 제조업 활성화를 추진

나. 교역

▣ 국가별 교역 현황

- 주요 국가별 수출입 현황
 - 미국과의 교역 의존도가 높으며 미국 경제 변화에 민감
 - '23년 상반기 수출입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고, 이는 1차산업 품목 가격 하락, 환율 변동성, 정치적 불안, 인플레이션, 높은 금리가 주요 원인
 - 최대 수출입 국가인 미국·중국과의 교역 또한 전반적으로 둔화한 반면, 對폴란드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31% 이상 증가함

〈콜롬비아 최근 4년간의 수출입 동향〉

(단위: 천 달러, %)

	2020	2021	2022	2023. 상반기
수출	31,055,811	41,389,989	57,115,389	24,553,391
수입	43,488,6620	61,101,362	77,413,351	31,820,918

자료: GTA(2023.09)

〈콜롬비아 10대 교역 대상국(2023년 상반기 기준)〉

(단위: 천 달러, %)

수출				수입			
순위	국 명	금액	점유율	순위	국 명	금액	점유율
1	미국	6,261,924	25.50	1	미국	8,087,076	25.41
2	파나마	2,103,447	8.57	2	중국	6,647,063	20.89
3	네덜란드	1,218,361	4.96	3	브라질	2,256,924	7.09
4	중국	1,207,228	4.92	4	멕시코	1,564,805	4.92
5	멕시코	999,020	4.07	5	독일	1,255,016	3.94
6	인도	944,695	3.85	6	프랑스	969,428	3.05
7	에콰도르	934,859	3.81	7	아르헨티나	770,113	2.42
8	브라질	924,106	3.76	8	일본	750,645	2.36
9	스페인	633,705	2.58	9	스페인	734,880	2.31
10	폴란드	628,631	2.56	10	인도	712,423	2.24
16	한국	372,431	1.52	13	한국	465,268	1.46
총 수출액		24,553,391	100	총 수입액		31,820,918	100

* 자료: GTA(2023.09)

▣ 주요 품목별 수출입 현황

- (수출) '23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4.27% 감소한 246억 달러
-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원유(22.83%), 석탄(18.28%), 금(6.24%) 등
- (수입) '23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7.36% 감소한 318억 달러
-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자동차용 휘발유(5.91%), 항공기(3.69%), 옥수수(3.03%) 등

〈콜롬비아 10대 수출 품목(2023년 상반기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수출				수입			
순위	품목	금액	비중	순위	품목	금액	비중
1	원유	5,605,317	22.83	1	자동차용 휘발유	1,880,213	5.91
2	석탄	4,488,745	18.28	2	항공기	1,174,014	3.69
3	금	1,532,490	6.24	3	옥수수	963,431	3.03
4	커피원두	1,428,021	5.82	4	의약품	861,022	2.71
5	기타 석유 및 역청유	1,291,721	5.26	5	기타 석유화학제품	811,780	2.55
6	화훼	641,615	2.61	6	통신 기기	806,532	2.53
7	코코스	590,150	2.40	7	오일 케이크	524,913	1.65
8	알루미늄 창과 틀	386,916	1.58	8	승용자동차 (실린더 용량 1,500~3,000cc)	444,345	1.40
9	페로니켈	382,892	1.56	9	승용자동차 (실린더 용량 1,000~1,500cc)	334,837	1.05
10	바나나	363,219	1.48	10	메슬린	332,985	1.05

주: HS CODE 6자리 기준

자료: GTA(2023.09)

• (공급망) 페로니켈

- 콜롬비아 페로니켈은 6개 지역(모로 펠론(Morro Pelon), 이투안고(Ituango), 메데인(Medellin), 플라네타 리카(Planeta Rica), 우레(Ure), 타라사(Taraza))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현재 코르도바(Cordoba)주 몬테리바노(Montelibano)에 위치한 세로 마토소(Cerro Matoso) 광산에서만 생산
- 동 광산주는 세로 마토소(Cerro Matoso)사로 '21년 기준 니켈 생산량은 약 3,800만 톤이며 그 중 페로니켈 생산량은 약 4.3만 톤
- 세로 마토소는 페로니켈 연간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22년 3월 북플라네타 리카(Planeta Rica) 지역과 타라사(Taraza) 지역 추가 탐사 계획 발표
- 세로 마토소 광산은 남미 최대 니켈 매장량을 보유하며 국립광업청(ANM)은 지난 '22년 12월 7일 Cerro Matosos S.A.와 사업권 연장 계약을 체결하였고 종료 기간을 2029년 8월 1일에서 15년 후인 2044년으로 연장

〈콜롬비아산 페로니켈 수출량 동향〉

(단위: kg, %)

구분	2020	2021	2022
수출량	125	109	144
수출액	435	528	908

주: HS code 7202.60 기준
자료: GTA(2023.09)

- 콜롬비아 페로니켈이 가장 많이 수출되는 국가는 중국으로 '22년 총 수출량의 약 47%를 차지, 2위와 3위는 각각 네덜란드(14.20%)와 한국(8.65%)이 차지

〈콜롬비아산 페로니켈 수출량 동향〉

(단위: kg, %)

순위	국가	2020	2021	2022	'21/'22 증감률
1	중국	74,559,469	52,497,890	67,695,230	28.95
2	네덜란드	8,023,792	8,225,318	20,453,843	148.67
3	한국	6,025,614	9,550,929	12,462,845	30.49
4	이탈리아	1,383,435	6,124,774	6,458,215	5.44
5	일본	6,335,026	5,185,847	6,032,304	16.32
6	독일	12,087,040	9,565,632	5,748,500	-39.90
7	미국	923,130	4,421,957	5,375,759	21.57
8	벨기에	/	1,114,390	3,849,270	245.41
9	핀란드	1,253,250	1,110,675	2,864,890	157.94
10	대만	3,266,121	3,555,602	2,833,570	-20.31

주: HS code 7202.60 기준
자료: GTA(2023.09)

■ 수입 규제

- (세이프가드) 對한국 적용 수입 규제 없음
 - 콜롬비아는 '23년 5월 16일 한국산 폴리염화 비닐에 대한 세이프가드 여부 조사 진행 중

〈콜롬비아 對한 수입 규제 조치 과정 요약〉

품목 분류	품목명	HS 코드	유형	조사 개시	현황
플라스틱	폴리염화 비닐	3904.10.20.00	세이프가드	'23.5.16	조사 진행 중

자료: 콜롬비아 상공관광부(MinCIT)(2022.9)

■ 비관세 장벽

- 콜롬비아의 수입제품 인증 등록제도
 - 위생 검역(SPS), 국제 표준에 따른 기술 규제(TBT) 및 환경 규제 관련 수입품에 대해 식약처(INVIMA), 농축업협회(ICA) 등 담당 기관 인증 취득을 요구

〈콜롬비아 수입제품 유형별 인증기관〉

종류	기관명	주관처	품목
SPS	INVIMA	국립 식품 의약품 감시원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의약품
	ICA	농업협회 (농림부 소속)	살아있는 가축 혹은 농·축·수·산림업 관련 제품
TBT	RETIE	광산에너지부	전기·전자 제품
	RETIQ		냉각·냉방 시스템이 장착된 가전제품 혹은 전기·전자제품
	RETIRAP		조명 및 조명시설

자료: INVIMA, 광산에너지부, 농림부

■ 영구 수입 규제

- 영구 수입 금지 품목
 - 황인, 수은 및 질산암모늄 등 위험 품목은 자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 영구 수입 규제 제품으로 지정
 - 대표 금지 품목으로는 화약(HS code 3601류 전체), 폭약(HS code 3602류 전체), 도화선, 도폭선, 뇌관(HS code 3603류 전체) 등, 무기, 총포탄 및 부분품(HS code 93류 전체)이 있음
 - 또한 중장비나 기계류, 의류, 자동차 및 부품 등은 기부의 목적을 제외하고 중고 제품의 수입이 전면 금지되어 있음

다. 투자

■ 콜롬비아의 외국인 투자 정책

- 꾸준한 외국인 투자 유치 장려
 - '90년대 경제 자유화 이후 콜롬비아는 꾸준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장려를 위해 노력 중이며,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에 대해 개방적인 정책* 보유
 - 또한 지난 '18년 수정된 법령 제1068호에 의거하여 외국인 투자 자유가 보장되며, 동 법령은 법적 구조 내에서 자본을 자유롭게 국가로 유입하는 것을 허용하며 특별한 제한**은 없음
 - 다만, 투자 진출과 청산 시 콜롬비아 중앙은행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이유는 통화정책과 투자자금의 흐름을 조사 및 규제하기 위함
- * 규정 제2000호: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자국 기업과 동일 법 적용
- ** 국방 및 핵폐기물 처리 사업 제외
- 콜롬비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펀드 매니저 자격 규제
 - 주식시장 내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을 개정해 펀드 매니저 자격 규제
 - 국가 전문 주식시장 등록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어야 펀드 매니저 자격을 가질 수 있음

■ 콜롬비아의 외국인 투자 동향

- 산업별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 '23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은 약 -4.75% 감소했으며, 특히 투자가 증가한 산업은 광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9.4% 증가
 - 투자액이 가장 높은 산업으로는 광업, 석유 산업, 금융/부동산 산업으로 전체 산업 투자 금액의 약 60.3%를 차지

〈콜롬비아 외국인 직접투자(FDI)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19	2020	2021	2022	2023. 상반기
13,989	7,459	9,561	17,393	4,305

자료: 콜롬비아 중앙은행(Banrep)(2023.09)

〈주요 산업별 콜롬비아 외국인 직접투자(FDI)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산업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상반기
석유 산업	2,755	457	916	3,088	1,778
농림수산업	365	193	281	261	128
광업	1,363	438	235	1,590	2,804
제조업	1,499	894	1,719	1,280	1,145
전력/가스/수도	316	764	1,041	968	415
건설	881	409	298	559	254
유통/요식/호텔	2,125	847	957	1,466	886
물류/교통/통신	1,006	538	1,133	1,789	726
금융/부동산	3,132	1,920	2,402	5,864	1,182
공공 서비스	547	998	579	526	244

자료: 콜롬비아 중앙은행(Banrep)(2023.09)

• 국가별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 '23년 상반기 기준, 주요 투자국은 미국(29.9%)이며 앵골라(18.2%), 스페인(12.0%)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
- 한국은 '23년 상반기 기준 콜롬비아 투자활동은 -0.1로 나타났으며 전년(0.0) 대비 감소

〈주요 산업별 콜롬비아 외국인 직접투자(FDI)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20	2021	2022	2023. 상반기
1	미국	1,843.1	1,732.6	4,998.3	2,861.4
2	앵골라	11.3	312.9	1,380.2	1,740.6
3	스페인	1,708.9	1,418.4	2,689.4	1,147.5
4	영국	269.2	407.6	850.3	754.1
5	스위스	582.8	1,056.5	1,099.2	545.7
6	네덜란드	1,098.2	1,341.1	464.2	241.3
7	멕시코	-934.4	182.7	238.8	227.1
8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726.2	240.8	285.5	211.2
9	프랑스	64.3	129.2	283.8	188.2
10	케이맨제도	-8.5	273.8	251.4	156.6
47	한국	4.7	-0.4	-0.9	-0.1

자료: 콜롬비아 중앙은행(Banrep)(2023.09)

■ 콜롬비아 투자 진출 진입장벽

- 투자 진출 진입장벽
 - 방송통신업은 외국인 지분을 40%로 제한하고 있으며 보험업, 금융업, 광업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사전허가가 필요함

■ 투자 인센티브 제공

- 콜롬비아 정부는 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

〈콜롬비아의 투자 분야 및 관련 인센티브〉

투자 분야	적용 인센티브
오렌지 경제	오렌지 경제 관련 산업* 투자 시 등록 자산이 125만 달러를 넘지 않는 산업체에만 20년간 소득세 면제 * 소프트웨어, IoT, 데이터 분석, 콘텐츠 개발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기술 육성 및 개발
메가 투자	2020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非광산 산업에 2억 7,000만 달러 이상 투자를 시행하여 4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 투자자 대상 소득세 27%로 감면(호텔 산업의 경우 9%), 재산세 및 배당금 세금 면제 혜택 부여
과학기술 개발	과학기술 분야 프로젝트 투자 시 투자 금액에 대한 소득세 100% 감면, 해당 투자를 진행한 기업에 투자 금액의 최대 25% 추가 소득세 공제 혜택 제공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투자 시 투자 금액의 최대 50% 소득세 공제
관광	인구 20만 명 이상 도시에 호텔 서비스 제공 시 10년간, 인구 20만 명 이하 도시에 호텔 서비스 제공 시 20년간 소득세 9% 적용
환경세	환경 관리, 보존 및 개선에 대한 투자 시 투자금의 25% 세금 공제

자료: INVEST IN COLOMBIA

라. 프로젝트

- 콜롬비아 다목적 토지조사 프로젝트(Proyecto Catastro Multiproposito)
 - 콜롬비아 정부는 국가 불모지 개발 중요성을 인지하여 정부와 반군 간 평화협정으로 부터 발생한 토지 소유권 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 개혁 추진 중
 - 본 사업은 '19년 합의되어 IDB로부터 5,000만 달러의 신용 용자가 승인되었으며 담당기관인 콜롬비아 국토지리원(IGAC)은 현재 개발 진행 현황 9.4%에서 '24년 70% 개발을 목표로 함

- 한국 국토교통부는 '23년 7월 콜롬비아 토지 분야 고위급 인사를 초청해 LX한국 국토정보공사의 측량기술, 토지 정보, 부동산 가격 공시 시스템 관련 지식 등을 나누는 연수 진행
- 코이카 평화 유지(Sosteniendo la Paz) 프로젝트
 -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국제이주기구(IOM)는 콜롬비아 분쟁 피해 지역 평화 지속화를 위한 평화 유지(Sosteniendo la Paz) 사업에 서명하였으며, KOICA에서 약 640만 달러 지원 예정
 - 동 프로젝트는 콜롬비아의 지역사회와 지역 기관 간의 신뢰 관계를 강화, 평화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공간 조성 및 리더십, 인권, 성별을 주제로 교육 과정 설계 예정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가. 교역

▣ 對콜롬비아 수출입 현황

- '23년 8월까지의 한국과의 무역수지는 적자로 나타남
 - 한-콜 교역 구조는 우리가 공산품을 수출하고 원자재를 수입해오는 전형적인 산업간 무역 형태
 - '20년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무역수지는 '23년 상반기까지 흑자를 이어왔으나 7월부터 자동차와 석유화학제품 등의 수출 부진으로 인한 적자 기록

〈한국의 對콜롬비아 연도별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2017	813	-4.6	651	50.5	162
2018	1,012	24.4	834	28.1	177
2019	1,143	13.0	718	-13.9	424
2020	593	-48.1	684	-4.8	-91
2021	898	51.4	704	2.9	194
2022	940	4.6	815	15.7	125
2023. 1~8월	510	-23.9	709	62.3	-199

자료: 한국무역협회(2023.09)

- (수출) 콜롬비아 자체 제조업 기반 취약 및 기술 부족으로 기술집약적인 완성품 및 자본재가 주를 이룸
 - '23년 8월까지 기준, 주요 수출품으로 합성수지, 자동차, 기타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부품 등이 있음

〈한국의 對콜롬비아 연도별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2022		2023. 1~8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합성수지	136	2.6	73	-30.6
2	승용차	118	6.6	66	-13.3
3	기타석유화학제품	86	18.6	30	-47.6
4	자동차부품	49	-14.8	26	-24.7
5	건설중장비	58	97.9	24	-33.1
6	아연도강판	22	-17.1	18	12.2
7	윤활유	20	15.6	18	1.6
8	열연강판	19	82.4	17	22.9
9	기타정밀화학원료	19	29.7	15	11.6
10	알루미늄조각품	23	-9.4	14	-32.3

주: MTI 4단위

자료: 한국무역협회(2023.09)

- (수입)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1차 상품 수입
 - '23년 8월까지 기준, 한국의 對콜롬비아 10대 주요 수입품 중 다섯 품목이 유연탄, 커피, 합금철 등 주로 1차 상품 위주

〈한국의 對콜롬비아 10대 수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2022		2023. 1~8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유연탄	405	41.6	487	242.2
2	커피류	205	48.6	111	-18.6
3	합금철	69	17.6	41	-34.0
4	동괴및스크랩	55	-23.2	24	-43.4
5	화초류	26	52.0	18	10.9
6	농약	10	-1.3	7	32.4
7	과실류	16	-31.1	5	-60.7
8	알루미늄괴및스크랩	10	-3.6	4	-53.8
9	기타금속광물	0	0.0	3	0.0
10	기타종이제품	1	-57.6	3	205.8

주: MTI 4단위

자료: 한국무역협회(2023.09)

한-콜 FTA 활용률

- '22년도 기준 한-콜 FTA 활용률은 수출 시 49.1%, 수입 시 93.0% 기록

한-콜 FTA 연도별 활용률 변화

(단위: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출	17.4	49.8	53.0	52.9	47.9	52.8	49.1
수입	66.4	87.2	90.3	88.9	88.4	94.2	93.0

자료: 관세청(2023.09)

- 한-콜 FTA 산업별 활용률 현황
 - '22년 산업별 기준, 수출 시 한-콜 FTA 활용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농림수산물 (94.5%)이며 철강금속제품 및 생활용품이 각각 90.7%, 86%로 집계
 - 수입의 경우, 가장 높은 활용률을 보여준 산업으로는 농림수산물이 94.5%로 집계 되었으며 철강금속제품은 90.7%로 2위 기록

한-콜 FTA 산업별 활용률(2022년 기준)

(단위: %)

산업별 (MTI 1 기준)	수출			수입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농림수산물	6.5	21.6	9.6	95.4	93.1	94.5
광산물	0.0	10.1	38.0	76.5	100.0	0.0
화학공업제품	26.0	22.5	40.7	88.4	76.7	75.3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54.3	52.6	56.9	59.6	40.0	49.0
섬유류	36.3	40.9	28.8	5.7	11.2	30.3
생활용품	24.2	16.8	30.1	75.5	83.4	86.0
철강금속제품	1.7	4.4	4.0	0.0	0.0	90.7
기계류	70.1	73.1	63.4	38.6	33.9	66.6
전자·전기제품	51.5	73.7	57.0	69.9	2.5	0.0
잡제품	0.1	0.0	0.0	0.0	0.0	0.0

자료: 관세청(2023.09)

▣ 우리 기업 수출 성공/실패 사례

- 국내기업 S사 차량 배터리 수출 지원
 - (애로요인) 콜롬비아 법무부에서 국내기업 S사 배터리 제품 성분 일부가 마약 제조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22,000달러 상당 선적분 제품 통관 불허
 - (주요 성과) 콜롬비아 법무부와 접촉하여 선적 물품 통관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해당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법무부로부터 통관 허용 품목으로 신청
- 콜롬비아 식약처(INVIMA) KGMP 인정 사례
 - (애로요인) 의료기기 통관에 있어 한국은 인증 절차 간소화 그룹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통 시 시간 지연 등의 애로사항 발생
 - (해결방안) 콜롬비아 식약처에서 한국 식약청이 발행한 KGMP를 인정하여 한국이 인증 절차 간소화 그룹에 포함되었으며, 우리 제약사 진출에 기여

나. 투자 진출

▣ 한-콜 투자 현황

- 우리 기업 투자 진출 동향
 - '23년 8월 기준, 우리 기업 약 23개 사가 진출해 있으며 대부분 현지 법인 형태로 운영 중
 - 한국의 對콜롬비아 주요 투자 분야는 도매 및 소매업

〈한국의 對콜롬비아 투자 현황〉

(단위: 개, 건, 백만 달러)

	신규 법인 수	투자금액	신고 건수	신고금액	송금 횟수
2019	3	3	7	3	8
2020	2	4	8	4	11
2021	1	1	5	2	4
2022	0	1	3	1	2
2023.3	1	1	1	1	1
총합	7	10	24	11	2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23.09)

〈2020~2023 1Q 기준 한국의 對콜롬비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개, 건, 백만 달러)

	신규 법인 수	투자금액	신고금액
제조업	0	0	0
운수 및 창고업	0	0	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0	0
도매 및 소매업	2	1	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23.09)

다. 협력 유망 분야

- (G2G) 방산 보안 분야에서의 협력 추진
 - 2023년 7월에 시행된 UNITAS 연례 해군 훈련에서 LIG NEX1사의 해성 미사일을 사용하여 목표물을 명중하여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
 - 현재 콜롬비아 해군은 해성 미사일을 G2G 방식으로 구매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으나 군 예산 문제 등으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
 - 콜 군에서 지속적으로 해성 미사일 구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바 동향을 주시하여 콜 군 수요에 적극 대응 필요

Chapter



진출전략



- (정치) 사회 양극화 감소 촉진 및 보호무역정책 추진
- (경제) 경제 둔화기에 있으며 '24년에 회복을 기대
- (기술) 디지털 전환 및 기술 채택을 통한 디지털화 추구

1

PEST 분석

P 정치정책 (Political)	• 일부 정당 및 의회의 입장 변화로 인해 정부 개혁안 계류 • 정부는 현재 건강과 연금 개혁안을 수정하여 의회와의 의견을 좁히는 중 • 향후 정책들은 극적인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안정성 유지에 중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 • 첫 좌파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개방적인 정치관계를 추구 • 현재 미국, 유럽, 한국을 포함한 전략적 정치 파트너들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 • 자급자족 사회 구축을 통한 무역 적자 감소를 목표로 함
E 경제 (Economic)	• 현재 경제 둔화기에 있음 •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화를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 중 • 물가 하락에 성공하였지만 목표 4%에는 도달 실패 ('23년 연말 추정치 9%) • 환율 안정화 추세이나 여전히 높은 수치로 수입 감소 • 전반적으로 느린 경제 회복 속도 전망
S 사회문화 (Social)	• 각 사회 계층 간 소비 패턴이 상이 • 친환경적 소비에 대한 관심 증가 • 반려동물 증가로 인한 애견용품시장 확장 • 건강 지향의 소비 패턴 • 인터넷 보급률 증가로 인한 온라인 소비 증가
T 기술 (Technological)	• 디지털 전환 추구를 위해 민간기업 간 제휴를 촉진 • 공공 서비스 디지털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 • 정부는 조기교육을 통한 기술 개방을 장려하며 초등교육 투자 증가 • 디지털 인프라 발전 및 기술 채택 증가

〈콜롬비아 시장 SWOT 분석〉

강 점(Strength)

- 지속적인 교역으로 인한 높은 신뢰도
- 한국의 제조업과 기술 산업에 대한 콜롬비아의 높은 수요 및 신뢰도
- 한-콜 FTA 수혜 대상

약 점(Weakness)

-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출시장 진출 장애 발생
- 콜롬비아의 복잡한 공공행정 절차
- 콜-한국 간 사회·문화적 요소 감안 필요

기 회(Opportunity)

- 콜롬비아 산업 및 제조업 육성 정책으로 인한 한국산 기계 수출 및 기술 전수 사업 잠재력 보유
- 콜롬비아 디지털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인프라, 전자정부 등의 IT 프로젝트 개발에 대해 기술 선진국인 우리나라와의 협력 가능성을 전망

위 험(Threat)

- 높은 물가와 금리로 인한 국내 수요 감소
- 불안정한 환율로 인한 수입 감소
- 느린 경제 성장 속도가 무역·투자 회복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전략 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적극적 공격-역량 확대)	- 한-콜의 원활한 관계를 통한 G2G 협력 확대 기관들의 적극적인 소통을 가능케 하는 고위 간부들의 지속적인 접촉 추구	협력 분야 파악하여 시장 접근
ST 전략 (차별화 전략-강점 활용)	- 한-콜 FTA의 관세 면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완제품 수입 가격경쟁력 확보 - 디지털을 활용한 세방화 전략 추구	콜롬비아 소비시장 연구
WO 전략 (단계적 시책-기회 포착)	- 정부의 디지털 전환 육성 정책에 맞춰 복잡한 콜롬비아 인증 절차 및 IT 인프라 개선 사업 참여	콜롬비아 디지털 역량 구축 및 강화 사업 공략
WT 전략 (방어/철수-위협 대응)	- 한-콜 기업 사이의 온라인 협력 강화를 통해 환율에 큰 영향을 받는 물류비용 절감	기술 및 서비스 상품 시장 공략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024년 진출전략

주요이슈	산업별 진출전략
인프라	○ 콜롬비아 국가개발계획에 따르면 약 2.5억 달러를 2026년까지 투입하여 사회 인프라 개선을 꾀하고 있음 ○ 프로젝트가 방대하고 각 프로젝트별로 요구사항 및 수요가 상이하기에 인프라가 아닌 개별 프로젝트를 검토하여 진출 기회 모색하는 것이 중요
ICT	○ 현재 콜롬비아 사회 양극화는 심각한 상황으로 ICT 접근성이 낮은 인구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임 ○ 콜롬비아 정부는 스마트시티 개발을 이전 정부부터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ICT 접근성을 높이고 각 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 ○ 현 정부에서 중시하는 키워드(예: 치안)와 ICT 접근성 향상을 고려하여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품목 발굴
재생에너지	○ (현 정부 정책으로 화석 연료 등의 의존성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 모색 중 ○ 현재 거론되는 재생에너지로 태양광, 풍력에너지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에너지 발전 기반 시설 수요가 증가할 전망 ○ 전기·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수요도 중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사업 수요 개발	인프라, ICT, 재생에너지 산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품목은 비슷한 경우가 많은 점과 보고타 무역관이 스타트업, 스마트시티 및 방산·G2G 거점 무역관인 점을 고려하여 무역관이 최적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유효 품목을 위 세 분야와 연계시켜 시장 공략
----------	---

3-1. 증가하는 식량안보 수요 맞춤형 유망 품목 발굴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콜롬비아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개발계획에서 인프라 개선을 명시하였으며, 공항, 항만, 도로 등의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
- 유엔총회 전 진행된 한-콜 정상회담에서 콜롬비아 대통령 페트로는 한국 기술이 콜롬비아 인프라 발전에 기여한 것에 감사하며 협력을 심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현재 보고타 지하철, 라과히라 신공항, 각종 고속도로 건설 등이 주목받고 있으며 사회 인프라 개선에 2026년까지 약 2.5억 달러를 투자할 것임을 밝힘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콜롬비아 중장기 목표인 국가개발계획 달성 수단으로 사회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증가 전망
 - 현 정권에서는 인프라 개선을 위해 대형 프로젝트 진행을 앞두고 있음
 - 특정 지역만 대상이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 개선이기에 과히라부터 아마조나스 지방 같은 소외 지역에도 상당한 자금이 투입될 전망
 - 현재 보고타 지하철 1호선, 팜플로나-쿠쿠타 고속도로 건설 등의 대형 프로젝트 입찰은 중국 자본으로 진행될 예정이나, 입찰이 시작되지 않은 프로젝트에서 진출 기회 발생할 전망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콜롬비아 민간항공청은 한국 드론 기술을 활용하여 항공 인프라 개선에 활용 희망
 - 콜롬비아 페트로 대통령이 항공우주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항공 인프라 수요 및 항공 편수가 증가할 전망
 - 콜롬비아 민간항공시설을 총괄하는 민간항공청(Aeronautica Civil)에서는 △신공항 건설 및 공항 수속 시스템 컨설팅, △드론 활용한 인프라 개선 등의 구체적인 협력안을 제시
 - 이에 콜롬비아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은 드론으로, 드론을 활용한 3D 매핑 기술 등으로 건설 분야에서 건물의 균열 및 시설 점검 기능이 인프라 프로젝트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

3-2. 콜롬비아 스마트시티 관련 ICT 품목 공략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인터넷 접속률 및 ICT 활용도 증가 등을 콜롬비아 국가개발계획에서 명시함으로써 ICT 제반 환경 중요성이 당분간 유지될 전망
- 콜롬비아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사업과 보고타 무역관이 스타트업 거점인 점을 고려하여 진출전략 수립 필요
- 현재 인터넷 보급률이 낮은 도시를 중심으로 인터넷 제공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며, 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제품 등이 주목을 받는 중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콜롬비아 정보통신부에서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 스마트시티 개발 공식적으로 착수
 - 스마트시티 개발에 대한 정의가 도시에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부에서 각 도시의 상황에 적합한 기준 제시
 - '21년도에 50개 이상의 행정구역이 스마트시티 개발에 관심을 표하였으며, 이 중 가장 대표적인 도시는 쿠크타, 부에나벤투라, 몬테리아 등이 있음
 - 스마트시티는 대표적인 ICT 유관 분야로 국가개발계획에 부합한다면 진출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예상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보안 솔루션 및 시설 기반 장비 등이 유망
 - 스마트 가로등(스마트폴)을 구성하는 품목들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가로등에 포함되는 조명 및 보안기기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치안이 불안정하여 CCTV와 같은 보안 품목 수요가 증가할 전망
 - 그 외 가로등에 포함되는 IoT 센서, 스마트 횡단보도, 재생에너지 활용한 가로등 등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국가개발계획의 ICT 활용도 증가 사례에 해당하기에 진출 전략으로 용이할 것으로 판단

3-3. 국가개발계획에서 명시하는 재생에너지 파악하여 관련 품목 발굴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콜롬비아 국가개발계획에서 탄소 및 석유 의존성을 줄이고, 에너지 전환을 시행하여 녹색경제 추구할 것임을 명시
* '26년까지 2,000MW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하는 것이 목표
- 2023년에 170만 헥타르에 해당하는 생태계를 복원 및 활성화시킬 것이라 명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삼림 벌채 등을 강력하게 규제할 전망
- 기존 에너지원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원 및 서비스 부문 수출량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분야의 R&D 예산을 GDP의 0.5%까지 증액 예정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재생에너지 제반 인프라 확충 및 인센티브 추가 도입 전망
 -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자 국가개발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사안으로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각종 법안 입법
 - 구체적으로는 하이브리드·전기 자동차에 대한 차량 5부제 운행 면제, 태양광 패널로 에너지 생산 시 정부에 에너지 판매제도 도입 등의 인센티브제 시행 중
 - 콜롬비아에 부족한 전기차 충전소를 확충하기 위해 기존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추는 방안을 검토 중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하이브리드·전기차량 등 친환경 기조에 부합하는 품목 성장세 유지 전망
 - 현재까지는 전기차량 인프라 부족, 높은 가격 등으로 뚜렷한 성장세 부재하였으나 현 정부에서 친환경 정책을 강력 추진하여 시장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차량 외 충전소 및 차량 부품 등도 차량 수입 증가가 상승세를 부분적으로 견인할 것으로 판단
 - 최근 꾸준히 상승한 기름 값도 전기차 수요 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지 차량 수입업자에 의하면 성장률은 느릴 것이나 장기적으로 매우 유망한 분야임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품목명 1	
굴착기	선정사유 - 정부는 불모지 개발 프로젝트와 4G와 5G 인프라 구축사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공에 필요한 중장비 수입 시장이 확장되고 있음을 파악
	시장동향 - 콜롬비아 수입 엑스캐베이터 시장은 성장기로 '22년 기준 전년 대비 약 40%의 증가율을 보여주었음
	경쟁동향 - 주요 수입국은 중국, 한국, 일본이며 한국은 '22년에 성장률 약 128%를 기록하며 큰 강세를 보여주었고 '23년 상반기에는 일본(162%)과 프랑스(8,774%)의 무서운 성장 사이에 약 9%의 증가 수치를 기록
	진출방안 -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도로공사 및 불모지 개발 프로젝트 추진으로 사업 수주를 준비 중인 혹은 절차 중에 있는 콜롬비아 건설회사 공략
품목명 2	
CCTV	선정사유 - 콜롬비아는 정부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도시기본계획에 스마트사업을 지시)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 및 감시 시스템에 필요한 카메라를 필요로 함
	시장동향 - 소방청과 교통관리기관 등의 감시가 필요한 조직들은 부족한 카메라 보유량 추가 확보가 요구됨
	경쟁동향 - 주요 수입국은 미국과 중국이지만 콜롬비아는 IT 강국인 한국의 기술에 높은 신뢰도 보여주기에 한국산 카메라는 수입시장 진출에 있어 잠재력 보유
	진출방안 - 현 정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기회로 삼아 정부 간의 G2G 협업 및 프로젝트를 통해 시장 진출을 권고
품목명 3	
드론	선정사유 - 치안, 농업, 레저 등 스마트시티 개발 계획에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음
	시장동향 - 드론 관련 규제 및 인증 제도가 도입되고 제도에 편입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에 드론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
	경쟁동향 - 현재 중국산 드론이 콜롬비아 수입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상위 10개국 내외에 위치
	진출방안 - 드론 자체보다는 어떤 목적의 드론이 어떤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안 관련하여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것을 권고
품목명 4	
태양광 모듈	선정사유 - 현 정부는 에너지 전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콜롬비아는 전력 발전에 필요한 대부분의 제품 생산 기반이 전무한 편이기에 발전소 건설 등의 그린정책에 필요한 제품들의 수입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
	시장동향 - 계속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에너지 협회들의 태양광사업에 대한 의욕 증가도 주목됨
	경쟁동향 - 주요 수입국은 브라질, 루마니아, 미국이며 한·중·일의 수입시장 점유율도 높음
	진출방안 - 저렴한 중국 제품이 있기에 한국 제품은 비교적 품질 신뢰도를 토대로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의 품질 중심의 방안 마련 권고

품목명 5		
하이브리드 자동차	선정사유	- 콜롬비아는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보유하고 있을뿐더러 소비자들의 친환경적 소비 패턴도 증가하고 있으며 가격적 측면을 이유로 전기차보다 훨씬 큰 선호도를 보임
	시장동향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꾸준히 늘어가는 수요는 '23년 일반 자동차의 둔화 추세에도 증가율을 기록
	경쟁동향	- 주요 수입 브랜드는 일본, 미국, 한국이며 미국과 한국은 자국에서 생산 및 수출을 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자국 및 브라질 생산 공장, 두 곳에서 수출 중
	진출방안	- 저공해 자동차 판매 수요 증가 추세 영향으로 자동차 부품 시장 수요 또한 유지될 것을 전망하며 기존의 강세 시장인 한국산 부품 유통 시장 확장 방안 모색 필요
품목명 6		
클러치와 그 부품품	선정사유	- 콜롬비아의 높은 중고차 선호도와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강한 신뢰도를 전제로 성장하는 콜롬비아 클러치 수입시장에 한국 점유율 확대 가능성을 전망
	시장동향	- 콜롬비아의 수입 클러치 시장은 계속되는 성장세에 있으며, 한국은 그 중 최대 수출국가로 시장점유율 약 24%를 가지고 있음
	경쟁동향	- 주요 수입국은 한국, 중국, 미국이며 한국은 10년 넘게 1위 자리를 지켜왔음
	진출방안	- FTA 관세 혜택을 사용해 기존의 공급망 유지 및 확대 필요
품목명 7		
비료용 질산염 혼합물	선정사유	- 정부의 농업산업 개발정책과 코로나 대유행, 러-우 사태 등 세계적 영향으로 인한 자급자족 사회 구축 지향 정책은 식량 생산업에 크게 중요한 비료의 큰 수요를 전망
	시장동향	- 콜롬비아는 해당 품목을 생산 및 수출하지만 아주 소단위로 수입 비료 의존도가 높고, 최근 세계 인플레이션 상승효과로 인한 식량 가격 증감에 비료 시장 확장 전망
	경쟁동향	- 주요 수입국은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등의 유럽 국가이며 중국 또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음
	진출방안	- 콜롬비아의 농업용 소비재 구매 패턴은 주로 농업조합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출 시 유통보다는 농업조합을 중심으로 공급망 공략
품목명 8		
필수 아미노산과 에테르	선정사유	- 콜롬비아는 애완동물 관련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필수 아미노산은 가축, 가금류, 애완동물 관리 등에 사용되는 식품 및 수의약품 생산에 필수적인 화합물임
	시장동향	- 콜롬비아 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갈수록 사료 등 동물용 먹이에 큰 비용을 투자하는 추세이며, 사료 및 수의약품 생산자들은 소비자들의 수요 고급화 심리 변화에 따라 제품 생산에 효과적인 원료 구매에 많은 관심을 보임
	경쟁동향	- 주요 수입국은 중국, 브라질, 일본이며 최근 높은 수요로 인해 가격이 인상되어 콜롬비아 수입시장이 위축됨
	진출방안	- 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B2B이기에 여러 바이어와 접촉·거래하거나 동물용 식품 및 수의약품 생산업체 다수와 유통하는 업체(도매상)를 위주로 공급망 확보 가능
품목명 9		
폴리에스테르 섬유	선정사유	- 콜롬비아 정부는 현재 국가 제조업 성장을 촉진하고 있으며 폴리에스테르 섬유는 섬유 산업의 많은 분야에 적용되고 있음

	시장동향	- 섬유는 가구, 의류 등의 다양한 제조업에 사용되며 꾸준한 수요를 유지
	경쟁동향	- 주요 수입국은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으로 중국산은 낮은 가격으로 시장점유율이 50%가 넘지만 품질 하자 및 납기일 경과 등의 문제로 한국산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
	진출방안	- 빠른 시장 선점을 위해 한국 기업은 콜롬비아의 큰 제조업체들 혹은 대기업들과 직거래를 하는 도매상들과 접촉하는 방법을 추천
품목명 10		
화장품	선정사유	- 한국 문화 및 콘텐츠에 대한 인기 상승으로 한국산 제품이 주목을 받고 있음
	시장동향	-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이나 한국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증가할 전망
	경쟁동향	- 주요 수입국은 멕시코, 미국, 브라질 등으로 지리적 장점을 지닌 국가들이 대부분
	진출방안	-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바 이를 활용하여 진출전략 수립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품목명 1		
디지털 교육 서비스	선정사유	- 콜롬비아 정부는 현재 디지털 전환 계획에 크게 중점을 두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높아진 온라인 교육 선호도와 페트로 정부의 저소득층 교육 접근성 향상 및 교육 서비스 현대화 계획으로 인해 디지털 교육 부문 공공·민간 투자 확대를 전망
	시장동향	- 코로나 대유행 이후 꾸준히 늘어난 온라인 교육 시장은 초/중/고/대학교와 같은 공교육 시스템뿐만 아니라 직장인들과 같은 성인들의 추가 교육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 다
	경쟁동향	- 콜롬비아의 디지털 교육 시장은 수요가 많은 만큼 공급이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이며, 교육 부문에 있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
	진출방안	- 공교육의 디지털 전환 시장은 아직 개발 및 향상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정부가 추구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 공급망 또한 아직 크게 개발되지 않았음에 콜롬비아 교육 디지털화 시장 내의 기회 포착 가능성을 분석
품목명 2		
전자정부	선정사유	- 콜롬비아의 공공 서비스 절차들은 다소 느린 경향이 있어 정부는 디지털화를 통해 공공 절차(특히 수출입 통관 절차)를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환시키기를 원함
	시장동향	- 정부는 디지털 전환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정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다소 적은 수이며 향후 시장에 대한 투자 증가를 전망
	경쟁동향	- 정부 시스템·문화 등의 비슷한 사회적 요소를 공유하는 남미 국가 중 기술 성장이 비교적 높은 멕시코와 칠레를 콜롬비아 공공 서비스 디지털 전환 시장의 주요 진출 국가로 파악
	진출방안	- 한국은 전자정부 시스템이 가장 발달된 나라 중 하나로 콜롬비아 시장 진출 시 발전 기술 전파를 중점으로 하되 콜롬비아의 공공 서비스 절차 파악 후 그에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 및 수출해야함
품목명 3		
지적(토지) 시스템	선정사유	- 현 정부는 토지 개혁 및 불모지 개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위한 큰 규모의 다목적 지적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음
	시장동향	- 동 사업 진행을 위해 기술 강국들과의 협력을 촉진하고 있으며, 한국 국토교통부와도 '23년 7월 지식 연수를 진행함
	경쟁동향	- 영국과 네덜란드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콜롬비아 지적 시스템 개발 협력을 진행 중
	진출방안	- 콜롬비아는 한국 기술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으며 측량기술·토지 정보화 등의 정보기술 전수사업 또는 시스템 구축사업이 유망할 것으로 분석
품목명 4		
의료 시스템 융합 및 디지털 서비스	선정사유	- 콜롬비아 정부는 현재 의료 시스템 융합과 원격 의료와 같은 의료 서비스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
	시장동향	- 시스템 융합에 있어서 데이터 병합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부재에 정부는 기술 채택 및 유입에 큰 관심을 표하며 투자를 증가함
	경쟁동향	- 정부는 선진적 의료 시스템을 보유한 나라들과의 협력을 촉진하고 있으며 현재 주 협력 추진 국가는 미국임
	진출방안	- 한국 기업은 정부와의 협업 및 공공 입찰 등의 콜롬비아 정부의 향후 행보에 주목해야 하며, 한국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을 시장 진출 기회요소로 파악

'24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사절단	화성시 중남미 사절단	'24.4/보고타
사절단	중남미 기계·중장비 사절단	'24.5/보고타
사절단	중남미 뷰티산업 사절단	'24.9/보고타

'24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ELN 평화협정 체결	미정	현재 평화협정 진행 중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태평양 동맹 정기회의	미정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콜롬비아 목재 가구 전시회	2024.05	
콜롬비아 국제 건강 전시회	2024.07	
국제 식품산업 전시회	2024.06	
국제 플라스틱산업 전시회	2024.09	
보고타 국제 산업 박람회	2024.09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정건영	과장	보고타 무역관	+57 601 637 5099(104)	juanjung@kotra.or.kr
2	Daniel Cano	specialist	보고타 무역관	+57 601 637 5099(116)	daniel.cano@kotra.or.kr

2024 콜롬비아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